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1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비닐봉지 속의 꽃
2. 법정 스님 편지
이렇듯 답답하고 숨막히는 계절에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보다 자기다운 출가 정신 1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설산에 사는 자 2
5. 선재등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세존께서는 어떤 업을 지었기에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단풍나무 아래서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계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점으로 제작합니다. 화학 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씹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11월 1일 발행, 통권 345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비닐봉지 속의 꽃

11월 한 달을 히말라야에 가서 지내다 왔다. 해발 2000~2500미터 고지에 있는 가난한 산동네이다. 8년 만에 다시 찾아간 네팔과 인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은 그들의 생활이 도리어 믿음직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는 세상에서 옛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보게 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그들은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근로자의 하루 노임이 우리 돈으로 남자는 2000원도 안 된다. 여자는 그 절반이다. 그쪽에서 중산층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집세까지 포함해서 13만~14만 원 수준이다. 이런 생활 조건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눈동자는 우리보다 훨씬 맑고 선량하고 안정되어 있다. 마음의 창인 그 눈동자가 말이다. 주어진 가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에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미국식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에 잘못 길들여진 우리이다. 소비생활로 인해 쓰레기만을 한없이 만들어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소비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한가? 마음은 안정을 잃고 자연환경은 날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도시는 매연으로 숨이 막히고 소음으로 귀가 멀 지경이다. 인간의 설 자리가 날이 갈수록 좁아진다.

인간의 이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안팎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그 가치 척도에 따라 형태는 달라진다. 적게 가지고도 즐겁게 살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는 얼마든지 있다. 아니 이웃으로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나 자신의 삶은 어떤지 되돌아볼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생산과 소비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친숙하고 조화로운 관계에 의해서 행복은 보증된다.

우리는 온갖 수모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 가면서 남의 나라에서 빛을 얻어 와야만 거덜 난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 갈 지경에 이르렀다. 빛을 새로 얻어 와야만 묵은빛을 갠게 된 그런 형편이다. 자, 이렇게 됐으니 우리 하나하나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이 시련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부로 쓰고 마구 버리면서 잘못 살아온 생활 태도에 대한 과보임을 깨우쳐 준다. 물질적 풍요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하다.

이제는 지금까지 익혀 왔던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일찍이 겪어 왔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현웃도 기워서 입고, 찬밥도 비벼서 먹고, 연탄불 하나도 소중하게 다루던 그때의 생활 태도를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저마다 투철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밖에서 들여온 물건을 사다 쓰지 말고, 기왕에 있는 것 속에서 가려서 써야 할 처지이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나가는 횡수도 줄여야 한다. 우리가 ‘국

제 통화 기금’의 올라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다. ‘사치한 자는 3년 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 버리고, 검소한 자는 1년 동안 쓸 것을 3년을 두고 쓴다.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을 모르고, 검소한 자는 가난해도 여유가 있다. 사치한 자는 그 마음이 옹색하고, 검소한 자는 그 마음이 넉넉하다. 사치한 자는 근심 걱정이 많고, 검소한 자는 복이 많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치는 악덕이고 검소함은 미덕이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익혀 온 악덕에서 벗어나, 인간의 미덕을 하루하루 다시 쌓아 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태평성세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런 살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그런 세월 속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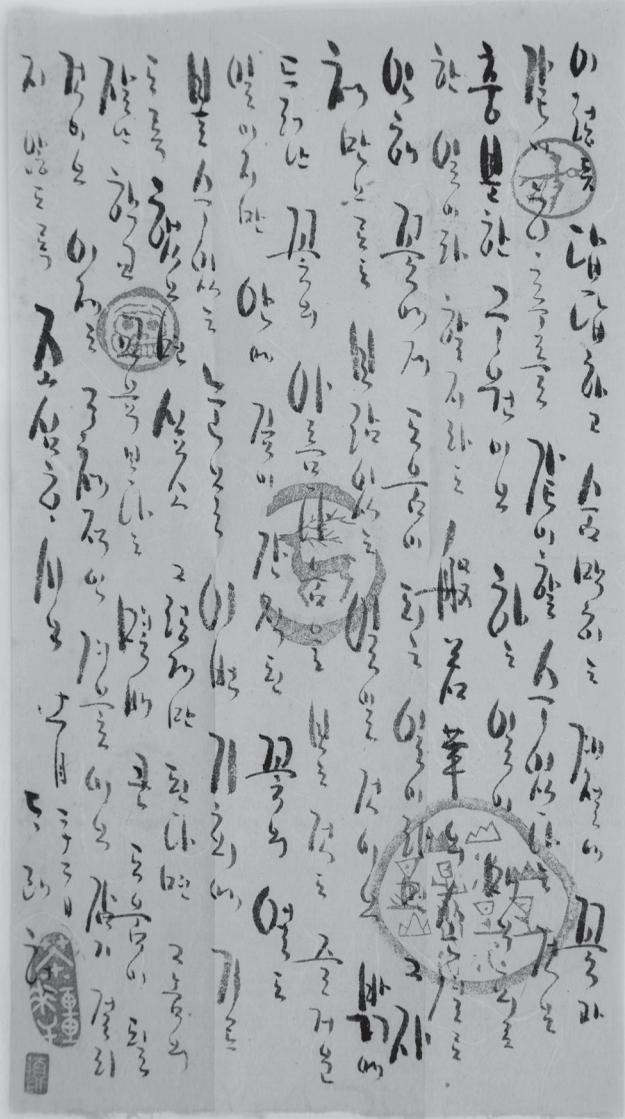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잠재된 창의력과 의지력이 계발되어 개인이나 사회는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나온 자취이다.

히말라야의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비닐봉지 속에 꽃을 가꾸며 살아간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화분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흙을 담아 꽃을 기르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까지 향기로운 꽃씨를 뿌려 주었다.

경제 난국에 기죽지 않고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삶의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서도 미덕美徳의 꽃이 피어나 기필코 이 난국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1997

2. 법정 스님 편지



이렇듯 답답하고 숨막히는 계절에 꽃과 같이 하루를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구원이요.

하는 일이 매우 피로한 일이라 할지라도 般若華의 손
결로 인해 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자체만으
로도 보람 있는 일일 것이요.

밖에 드러난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지만 안에 깊이 간직된 꽃의 얼도 볼 수 있는 눈을 이번
기회에 기르도록 했으면 싶소.

그렇게만 된다면 그놈의 잘난 학교 교육보다는 몇 배
큰 도움이 될 것이요.

이제는 구체적인 겨울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요.

十一月二十二日

다래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반야화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보다 자기다운 출가 정신 1

이 글은 2004년 12월 10일 법정 스님이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 나가고 싶은 충동 안 느끼세요? 그게 출가 정신이에요. 보다 나은, 보다 자기다운, 보다 꽃다운, 보다 인간다운 삶은 없을까 하고 찾게 되는 것. 출가한 사람이 맨 먼저 하는 일이 스승을 찾는 일이에요.

2500년 전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주로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웃다카 라마똥다라는 두 스승이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스승이었는데 둘 다 고행주의자예요. 싯다르타가 부처님 되기 전에 경지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없다고 스승들이 붙들어요. 그러나 거기 주저앉지 않고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몸소 고행을 합니다. 당시는 보편적으로 고행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하루 쌀 한 톨 먹지 않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6년 고행 결과 완전히 갈비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고행하다가 한날 문득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이 고행이 진정한 수행인가, 이러다가 기진맥진해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보살피면서 건강해야 도를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고행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고행을 그만둬요. 그런 다음 나이란자나강에 가서 목욕하고 인근 마을 수자타라는 아가씨가 준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요. 그때 같이 수행하는 다섯 수행자가 있었는데, 고타마가 그렇게 애써서 지독한 고행을

했으나 그만두고 마을 아가씨가 준 공양을 받아서 타락했다며 다른 데로 떠나 버려요.

싯다르타는 공양을 받고 나서 어떤 강가 나무 아래서 새로운 결심을 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내가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결사정진을 해요. 어느 날 새벽이 뜨는 걸 보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성도를 이뤘다, 부처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본질적인 자기,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극단적인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 양극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싯다르타가 집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왕국 이긴 하지만 왕자로서 세속적인 쾌락을 누렸고, 출가 후는 감히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이 둘이 다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하는 설법을 최초로 한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 설법의 대상자는 함께 수행한 다섯 수행자들이었어요. 보리수, 당시는 그게 보리수가 아니고 비파라는 건데 우리 염주나무하고 비슷해요. 그 나무 아래서 보리菩提, 즉 도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름이 보리수가 된 겁니다. 거기서 성도成道를 해가지고 베나레스 근교의 녹야원까지 가요. 다섯 수행자들이 녹야원에 있었는데 멀리서 타락한 고타마가 오는 걸 보고 아는 척하지 말자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가까이 오니 그 위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발 씻을 물을 떠다 주었다는 기록이 있

습니다. 정각자(正覺者, 즉 바른 깨달음을 이룬 사람의 위력이었던 거지요. 그 에너지 때문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귀의합니다. 이때 최초로 한 설법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년하고는 다시 안 만나야 되겠다며 모진 소리도 하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극단주의 자체가 병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사람의 모진 마음이 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때예요. 모진 마음, 극단에 치우친 마음 자체가 내 본심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후회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한때 스치고 지나갈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을 평온히 지냈을 때, 아무 잡념 없이 조용히 있는 무심한 상태가 내 본마음이고, 요동치는 마음은 번뇌의 망상이니 거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데 치우치지 마세요.

대개 다음 생에도 배우자를 다시 만나고 싶냐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지요. 새로운 메뉴가 필요하지 묵은 메뉴 지겹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탓이에요. 내 상대라는 건 내 부름의 응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에 의해서 그러한 존재가 다가서는 것이지 C학점짜리가 A학점짜리를 바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좋은 상대감이 돼야 해요. 나는 그렇지 않고 좋은 상대만을 구한다면 허욕이에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설산에 사는 자 2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163 칠악 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분의 행동은 순수하다. 그분은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163-1 설산 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찬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63-2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따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64 칠악 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165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 성인의 정강이는 영양(羚羊)과 같이 여위고 가늘다. 그분은 지혜롭고, 많이 먹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자, 우리는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깨달은 사람의 정강이가 영양과 같다는 말 속에는, 당시 수행자의 이상적인 신체 조건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행자는 살이 찌서도 안 되며,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

166 욕망을 돌아보는 일 없이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에게 우리는 물어보자. 죽음의 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167 두 야차가 함께 말했다.

“열어 보이는 분, 풀어서 밝히는 분, 모든 사물의 궁극에 이르고 원망과 두려움을 초월하여 눈을 뜬 고타마께 우리는 물어보자.”

168 설산야차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났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무엇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169 스승은 대답하셨다.

“설산에 사는 자여, 여섯 가지 것으로 인해 세상은 생겨났고, 여섯 가지 것으로 인해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은 여섯 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그 여섯 가지 것에 괴로워하고 있다.”

(*여섯 가지는 눈, 귀, 코, 혀, 몸, 뜻(意志)을 가리킨다. 이를 육근(六根) 또는 육입(六入)이라고 한다.)

170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

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71 “세상에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意]의 대상은 그 여섯 번째이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은 형태, 소리, 향기, 맛, 감촉 등 오관五官의 대상이다.)

172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사실대로 밝혔다. 이 일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173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거센 흐름은 윤회의 생존을 비유한 말이다. 때로는 바다에도 비유한다.)

174 “항상 계율[戒]을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염원[念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175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세존께서는 어떤 업을 지었기에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구나.

나는 보살의 꺾기 어려운 지혜장[智慧藏] 해탈문을 얻었다. 또 보살의 견고하게 받아 지니는 수행의 문을 얻었고,
보살의 모든 법에 평등한 총지문[總持門]을 얻었고,
보살의 모든 법을 밝히는 변재문을 얻었고,
보살의 모든 법을 구해 고달픔이 없는 삼매문을 얻었다.”

선재동자가 말했다.

“성자께서 얻은 보살의 꺾기 어려운 지혜장 해탈문과 법을 구해 고달픔이 없는 삼매문은 그 경지가 어떻습니까?”

청신녀가 말했다.

“선남자여, 그것은 알기 어려우니라.”

“성자께서는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저는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잘 믿고 받아 지니고 통달하고,

나아가 관찰하고 닦아 익히고 순종해

모든 분별을 떠나 구경 평등에 이르렀나이다.”

청신녀가 말했다.

“선남자여,
 과거세에 이구겁離垢劫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이름은 수비修臂이고,
 전수電授라고 하는 국왕이 딸 하나를 두었으니
 그가 곧 지금의 나였다.
 당시의 어느 날 밤,
 음악 소리도 그치고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잠이 들었었으며,
 500의 동녀들도 자고 있었다.
 나는 자지 않고 누각에 올라가 별을 보다
 허공에 계시는 그 부처님을 뵈게 되었으니,
 그 분은 보산왕寶山王과 같았다.
 한량없는 하늘·용 등 팔부신장八部神將과 보살들이
 그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부처님 몸에서는 큰 광명이 뻗어 나와
 十方세계에 두루 해 막힘이 없었다.
 부처님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기가 나왔는데,
 그 향기를 맡자 내 몸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에는 환희가 일었다.
 그때 나는 바로 누각에서 내려와 땅에 서서
 열 손가락을 모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처님을 우러러보았지만
 정수리는 볼 수 없었으며,
 좌우를 돌아보았지만 끝닿은 데를 알 수 없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생각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부처님 세존께서는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훌륭한 몸을 받았을까?

상호가 원만하고 광명이 구족하며,
 권속을 많이 두고 궁전이 장엄하며,
 복덕과 지혜가 청정하고
 다라니와 삼매가 불가사의하며,
 신통이 자재하고 변재에 걸림이 없으실까?’
 그때 여래께서는 내 생각을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라.
 이길 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깨뜨려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제하라.
 미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널리 모든 세상에 태어나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모든 여래의 법비를 받으라.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불법의 광명을 내라.
 크게 머물러 지니는 마음(大住持心)을 발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널리 굴러라.
 넓게 유통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법보를 널리 베풀어라.’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단풍나무 아래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다
문득 그가 보고 싶을 적엔
단풍나무 아래로 오세요

마음속에 가득 찬 말들이
잘 표현되지 않아
안타까울 때도
단풍나무 아래로 오세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세상과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저절로 기도가 되는
단풍나무 아래서
하늘을 보면 행복합니다

별을 닮은 단풍잎들의
황홀한 웃음에 취해
나의 남은 세월 모두가
사랑으로 물드는 기쁨이여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목)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 기행(접수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0월 28일(토) / 충북 괴산군 사담계곡, 낙영산 공림사(접수는 10월 4일부터)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 치료, 상담, 정서 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 지대(아동, 청소년, 홀로 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 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 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집결 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 종료(자립 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33독송기도
 - 일시 : 11월 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이번 다라니 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4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 드립니다.
- 대입수능 100일기도 회향
 -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수능 21일기도 입재
 - 일시 : 11월 17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공덕주길상화보살기일
 - 일시 : 11월 19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추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1월 26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안거결제및 보름기도
 - 일시 : 11월 2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11월 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11월 4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1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11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3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보름기도	11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